



종합가금회사 설립

<쿠웨이트>

쿠웨이트정부는 급진적으로 늘어나는 닭고기와 계란의 소비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종합가금회사를 설립키로 했다. 쿠웨이트정부관리는 현재와 같은 소비수준으로는 매년 1,500ton의 닭고기와 2억개의 계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새로운 종합가금회사는 쿠웨이트 법령으로 다음과 같이 정했다. 자본금의 25%는 정부에서 투자하고 25%는 양계업자, 사료회사, 그리고 부화업자들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나머지 50%는 국민전체에게 주식을 공모키로했다. 이에 쿠웨이트정부에서는 민간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주주에게는 금융상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 종합가금회사의 주요사업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산란계와 육용계의 품종개발 및 신품종도입
2. 산란계전용농장과 육계전용농장을 갖추는 일
3. 계란과 육계등의 생산물 저장창고와 부화장 그리고 사료공장등의 건설
4. 닭과 기타 가축의 사료원료의 생산과 확보
5. 국내외에서 우수하다는 종란, 병아리, 사료원료 등의 구입 및 자체생산

이 종합가금회사가 완성이되면 쿠웨이트는 계란과 육계의 국내자급은 물론 수출도 가능하리라 말하고 있다.

세계의 미곡생산

<영 국>

영연방사무국은 75~76년도의 세계미곡생산고는 3억 7천 1백만톤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는 74~75년도 3억 4천 6백10만톤보다 4.6%(1천 5백만톤)가 증가한 것이라고 이곳 보도는 전하고 있다.

이는 주로 인도의 대폭적으로 기인한 것인데 인도는 지난해보다 약 8백만톤 증가할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중공, 태국, 미국의 생산량도 전체적으로 70~100만톤 증가하고 파키스탄, 버마, 이집트등의 증산분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사무국은 76년도 세계곡물무역의 전망에 대해 수출가능량은 늘어도 수입필요량은 큰증가를 기대할 수 없을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인도네시아, 한국의 미곡수입량은 작년수준을 하회하고 중동의 수입이 계속늘어 일부 상쇄되기는 하나 금년도말 수출국의 기말재고는 전

체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76년도는 전반적으로 가격의 약세를 나타낼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대두 선물시장 재개장

<프랑스>

프랑스 증권소식통에 따르면 파리 상품거래소는 최근 대두선물시장을 재개장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72년부터 중단되어 온 대두의 선물거래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정부와 전문기관에 의해 승인되었다고 한다.

신규계약에 있어 최소 거래단위는 55ton이며 계약조건으로는 100kg당 Reterdam CIF 가격기준으로 전적을 내야한다고 한다. 한편 개장시기는 74년이후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국제제당선물시장의 공식적인 재개장시기와 일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한국비타민(주) 그로빅-BD 20Ton 필리핀 수출 ■

독일 바이엘과 미국 살스베티 기술제휴로 우수제품을 개발, 공급해오던 동물약품 전문메이커인 한국비타민 헤드쿼터스(주) (대표: 김길원)는 작년 10월 필리핀에 그로빅-BD(종합사료첨가제) 10%를 수출한 바 있는데 이번 다시 필리핀에 그로빅-BD를 20%를 수출 (약 2만\$ 상당)하였다.

그리고 2월 26일 창립 11주년 기념식을 본사 사무실에서 가질 예정으로 있으며 그동안 양측가의 성원에 감사드린다 한다.

상품거래고 옥수수가 수위차지

<미 국>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지는 75년도 미국의 각 상품거래소의 거래고를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전미국의 상품거래고는 전년비 16%의 증가를 나타내고 이 중에서 옥수수가 수위를 차지했으며 은(銀)은 큰 증가를 보이고 있다. 또 시카고·보도·오브·트레이드는 변함없이 가장 성황을 이룬 거래소로 상장되어 있는 상품 중 옥수수의 거래액은 작년에 이어 톱을 차지했다. 이와같이 2년제속 거래고 수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원인중 하나는 소년의 양곡대량매입에 따른 영향때문인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옥수수의 거래액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80년대의 양계산업

<이스라엘>

이스라엘정부는 75년도에 1억개이상의 계란이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보호를 목적으로 계란의 소비자가 격은 낮추어지지않았다. 이와 같이 많은 계란의 여분 때문에 이스라엘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비자를 설득시키려했으나 실패했다.

계란의 연중안정된 수량과 가격으로 공급하는 방법, 이 방법은 소비자와 계란판매상들로 부터 큰 반발에 부딪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이스라엘 농무성에서 계란파우더를 만들어 학교와 군대에 적정량을 배치하기로 했다.

닭고기의 생산은 75년도에 110,000ton을 생산했으며 칠면조고기는 40,000ton을 생산했다. 지금 현상태와 같은 소비증가수준으로는 1980년도에는 닭고기와 칠면조고기의 생산과 소비가 200,000ton에 이를 것으로 이스라엘정부에서 예측하고 있다.

이와같이 닭고기와 칠면조고기의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요인중의 하나는 냉동닭고기가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냉동닭고기의 연간 총 소비량은 2,500ton에 이르고 있으며 칠면조고기 생산도 역시 늘어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칠면조고기의 생산은 이스라엘의 외환수지에도 보탬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값비싼 수입냉동육을 부분적으로 대체가 가능했고 약

간의 수출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칠면조가슴고기부분을 혼연하여 실험적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에 이스라엘농무성에서는 칠면조고기 수출증대방안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조사에 나서고 있다.

산란용 병아리 증가

<일 본>

일본농림성 통계정보부는 지난해 10월 24일 7월의 부화수수를 발표했다.

그 발표에 의하면, 산란용은 작년 4월부터 계속 증가해 824만 마리로서 전년동월에 비하여 8.6%가 증가했다. 이것은 이른봄 이후 란가의 오름에 자극을 받아 계란의 생산계획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출하마리수는 754만마리로서 전년동월에 비하여 8.5% 증가하고 있고 8월에도 같은 상태로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한편 부토일라용은 시장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무감별부화에서 3,583만마리로서 전년도 보다도 2.7%감소했으며 8월의 출하수수는 2% 감소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각 시도 식산국장, 축정과장 회의■

—지난 2월5일2시 농수산부회의실에서 개최—

이날 회의에서 농수산부장관의 76년도 축산시책방향이 하달되었는데 특히 미등록 부화장 단속 및 중계등록을 필하지 않은 부화장을 중점적으로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